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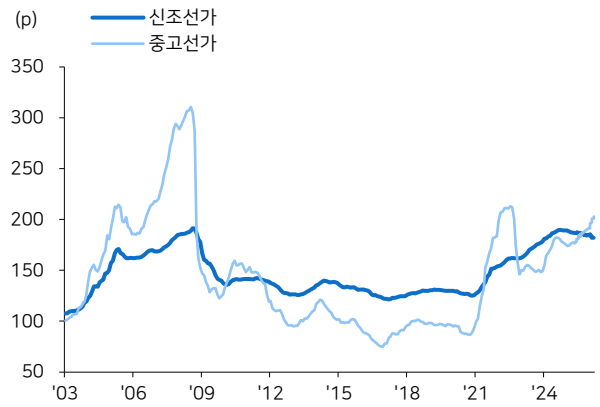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3. 24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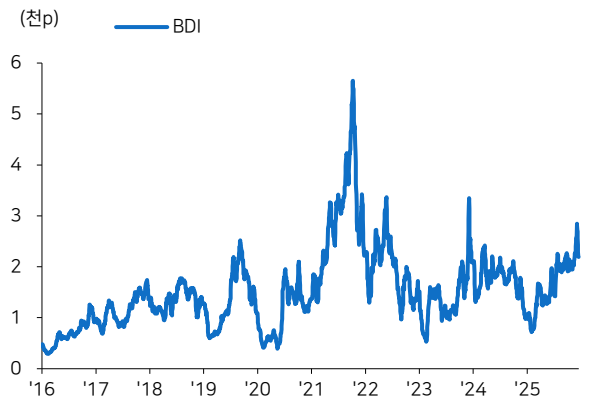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2.1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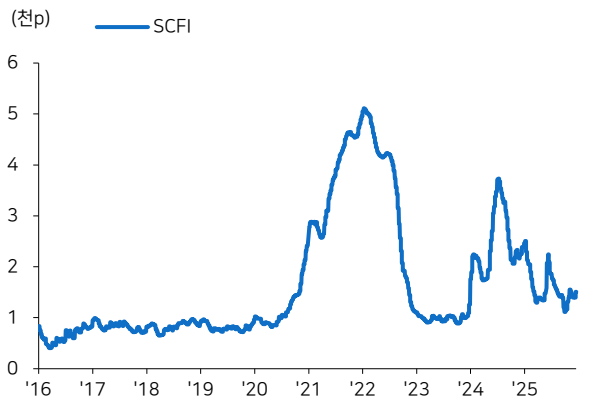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9.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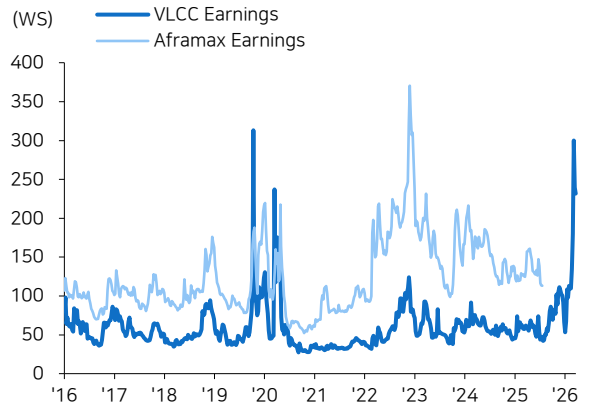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056.0p (-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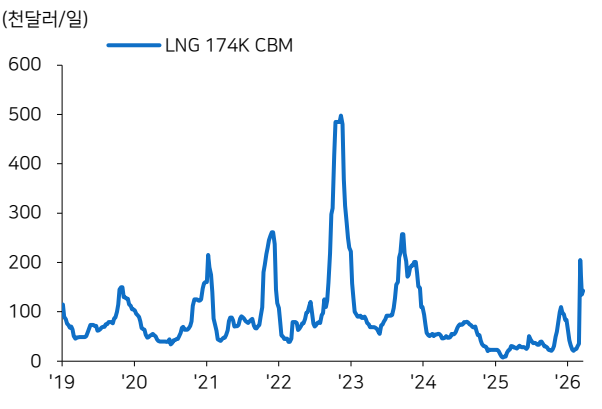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706.5p (-3.8p WoW)



VLCC Spot Rate 231.6WS (-8.1p WoW)



LNG Spot 운임 142.5천달러 (+7.5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elsius Tankers books in LNG newbuilding duo as it boosts fleet to 26 ships (TradeWinds) https://zrr.kr/gBz6lv

Celsius Tankers가 삼성중공업에 18만cbm급 LNG 운반선 2척을 척당 약 2억 5,680만 달러(총 5억 1,350만 달러)에 발주하며 함대를 26척 규모로 확대했다고 보도됨. 이번 신조선은 2028년 9월 이전 인도될 예정이며 이미 장기 용선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삼성중공업은 최근 Purus Marine의 물량을 포함해 며칠 사이 3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하는 등 강력한 수주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해짐. 삼성중공업은 올해 현재까지 총 14척, 29억 달러 규모를 수주하며 연간 목표액 139억 달러의 21%를 달성했으나,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따른 QatarEnergy 물량의 시장 유입 가능성 등 향후 수요 변화에 대한 업계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짐.

DH Shipbuilding bags order for second suezmax tanker in two weeks (TradeWinds) https://zrr.kr/rl7HOo

대한조선이 아프리카 소재 선주로부터 약 1,340억 원 규모의 Suezmax급 유조선 1척을 수주하며 2026년 시작 이후 총 10척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이번 수주는 지난 1월 체결된 계약의 옵션 행사로 2029년 6월 인도될 예정이며, 이로써 대한조선은 1분기가 끝나기 전 연간 수주 목표의 82% 이상을 달성하고 3.5년치 이상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했다고 전해짐. 최근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항로 장기화로 Suezmax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한조선은 기존 고객들의 반복 발주를 바탕으로 고수익 프로젝트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Ryan Lynch exits Hanwha Shipping as shipowner moves from 'origination' to 'optimisation' (TradeWinds) https://zrr.kr/UMS170

한화그룹의 해양 및 방산 계열사인 한화쉬핑의 초대 대표이사 라이언 린치가 설립 2년 만에 사임했다고 공식 확인됨. 린치 대표는 재임 기간 동안 한화오션과 한화필리조선소 등 그룹 내 조선소를 통해 18척의 선박 발주를 주도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부흥 전략 내 민간 부문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해짐. 그는 회사 설립과 기틀 마련이라는 초기 목표를 달성했음을 강조하며 사임 후 본인의 자문사인 Maritime Opportunity Investment Corp로 복귀할 예정이나, 한회쉬핑 측은 아직 후임자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알려짐.

캐나다 대규모 경제사절단 30 일 방한...SK·한화·HD 현대·두산·풍산 연쇄회동 (더구루) https://zrr.kr/1Bh3fJ

캐나다의 마닌더 시두 국제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무역사절단이 이달 말 방한하여 방산, 청정에너지, ICT,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이번 방문은 약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초계 잠수함 사업인 CPSP와 맞물려 양국 경제 교류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며, 인도 · 태평양 시장 내 입지 강화를 노리는 마크 카니 총리의 전략적 행보로 전해짐. CPSP 최종 후보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폭넓은 산업 협력 패키지에 대응해 현지 파트너십 체결 및 원유 수입 제안 등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알려짐.

HD 현대, 조선소 특화 '용접 휴머노이드 로봇' 본격 실증 (뉴시스) https://zrr.kr/AsVjtr

HD현대 산하의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로보틱스가 미국의 Persona AI와 협력하여 조선소 현장에 특화된 '용접용 휴머노이드'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은 지난해 착수한 시제품 개발의 후속 단계로, HD한국조선해양의 공정 데이터와 Persona AI의 2족 보행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여 고난도 용접 및 정밀 제어가 가능한 AI 기반 로봇을 선박 건조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HD현대는 숙련공의 작업 노하우를 학습한 피지컬 AI 기술을 바탕으로 작업자 안전 강화와 생산 효율 극대화를 도모하며, 이를 미래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 기술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알려짐.

한신평, HD 현대·중공업·일렉트릭 신용등급 'AA-'로 상향 (연합인포맥스) https://zrr.kr/hvUec6

한국신용평가(KIS)는 조선 및 전력기기 부문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HD현대, HD현대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됨.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급증하고 HD현대일렉트릭 또한 3배가량 성장하며 지주사의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에도 우수한 실적 유지가 가능할 전망으로 전해짐. 한국기업평가(KR)와 나이스신용평가(NICE) 등 타 신용평가사들도 해당 기업들의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조만간 추가적인 등급 상향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